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 1833-9030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음 2월 14일) 제22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가식품클러스터법 제·개정 탄력

정부·의원입법 투트랙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이춘석 의원 '입주기업
소득세 감면 등 법안'
조배숙 의원 '기업지원
세제혜택 등 법안' 개정



시원하게 나오는 물줄기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인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분수대를 찾은 학생들이 물줄기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센터 내 중점적인 명칭 혼란을 해소하고 사업비 부담이 금년부터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 보조·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5월)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추진된다.

법률안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2018년 9월13일 대표발의,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춘석 의원이 차기 기재위 위원장직으로 내정된 상태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량을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배숙 의원안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

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된다.

특별법안은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2018년 10월 5일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상임위 간사역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등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업지원, 수출입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 입주가 활기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한 2단계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금번 법제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제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혁신성장 거점 육성해야"

전국 기초회의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전북대표회장 박병술 의장(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

준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특례시를 정부안대로 지정하면 경기권으로 3곳이 밀집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대도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재차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2면 -전북도,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

6면 -상공의 날 모범기업인 표창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전주시, 42억5000만원 투입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캠틱종합기술원에 조성키로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전주에 들어선다.
전주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등 총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캠틱종합기술원에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공장 배움터(러닝팩토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첨단 생산설비가 완비된 스마트공장의 운영능력을 키우는 교육·실습 공간으로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조성되는 것은 경기도 안산에 이어 국내 2번째다.

스마트공장은 첨단센서 등을 이용해 얻은 생산정보를 컴퓨터 기술(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을 통해 이해하고 생산 품목, 수량 등을 판단한다.

이를 기초로 가상공간과 물리적 현실공간을 연결(디지털 트윈)한 공장 설비를 가동, 제품을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오차율(불량)에 대한 피

드백까지 점검하는 지능·능동형 공장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확산할 계획으로, 스마트공장은 이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손꼽힌다.

스마트공장이 가동되면 이러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애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한발 먼저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배움터가 위치하게 될 캠틱종합기술원은 연구·개발,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그간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및 지역 산업체 등을 지원해 창업단계의 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해왔다.

이에 앞서, 시는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추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와 도는 탄소와 수소, 농생명과학 등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산업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공동으로 펼쳐왔다. /송효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